창사 68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개관기념 특별할인!
품격있는 도심속 프리미엄 추모공간
(재)메모리힐즈추모공원
www.memoryhills.kr

제9286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음력 9월 26일)

36년 숙원 풀었다…순천대 '정원 60명 국립의대' 확정

교육부·복지부, 신설 대학 선정 발표

경북권 경국대에도 정원 40명 배정

2030년 첫 신입생 입학 목표로 추진

순천 "환영"…목포 "재검증" 반발 지속

전남광주지역의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정부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하면서다. 순천대 의대는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목포 등 서남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역 갈등 봉합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관련기사 3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 취약지역의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남권에서는 순천대를, 경북권에서는 경국대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설 의대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전남광주시와 순천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대학별 의과대학 설립 계획과 교육·수련병원 확보, 교원 및 교육시설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2030년 첫 신입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순천대는 의대 설립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육부 인가 등 단계별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광주지역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의대 설립 요구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옛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꼽혀 왔으며, 동부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내 후보 대학을 놓고 순천대와 목포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추진됐다. 두 대학은 2024년 11월 통합에 합의했지만 의대와 대학본부 소재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 7월27일 통합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전남광주시는 정부에 두 대학을 개별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별도의 후보 대학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한 평가 결과 순천대가 목포대보다 1.3점 높은 점수를 받자 지난 8월30일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목포대와 서남권은 의대 부지 확보와 평가 기준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남광주시로부터 수차례 소명자료를 받고 심사 담당자의 직접 설명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추천 과정을 검토한 결과,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를 통해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후보 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당초 전남광주지역에는 1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최종적으로 6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과 경북 지역에 기존 의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거쳐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순천대와 순천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천대는 교수진 확보와 교육시설 구축, 대학병원 설립 등 후속 준비에 나서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전체의 의료 안전망을 책임지는 의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목포 등 서남권에서는 선정 과정에 대한 재검증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서남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 지역 갈등을 수습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기관, 대학이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서남권에도 실질적인 중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4일 순천 율촌산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제작센터에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식' 행사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우주 수송 거점' 한화에어로 순천사업장 준공

국내 최대 민간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내년 하반기 누리호 6호기부터 단 조립

市, 순천-고흥 연계 글로벌 우주항 육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남광주 순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발사체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일 순천 해룡면 율촌산단에서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을 비롯해 김문수·황정아 국회의원, 박재성 우주항공청 부문장, 손훈모 순천시장 등 정부·국회·지자체와 우주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순천사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부터 발사체 각 단을 조립한다. 순천에서 조립한 각 단은 해상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옮겨져 발사체 최종 조립과 발사 준비가 진행된다.

2024년 착공한 순천사업장은 6만1천146㎡ 부지에 총 508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누리호 1·2·3단을 각각 조립하고 기능을 점검하는 등 우주발사체 제작·조립을 위한 생산 기반을 갖췄으며, 상시 고용 인원은 60명이다.

순천사업장은 정부의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전략과 연계해 지역 우주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누리호를 비롯한 차세대 발사체의 안정적 양산 체계를 뒷받침하는 생산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 민간 주도 우주발사체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사 횟수와 우주항공 분야 투자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전남광주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민간 주도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31년까지 국비 포함 1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장과 엔진연소시험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순천의 발사체 제작·조립 기반과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발사 기반을 연계해 제작부터 시험·발사까지 이어지는 우주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남광주를 글로벌 우주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최명진 기자

'선거법 위반' 윤석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유지

확정땐 국힘 대선비용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절차에도 시선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당선자의 경우 당선무효로 처리된다.

대선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394억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모두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금액을 전부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대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한다.

이에 불응할 시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를 위탁한다. 대선의 경우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된다. /연합뉴스

Today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상인 '이중고' 6면

남도인물열전-정우채 14면

SOOP, 오늘 도로공사 상대 홈 개막전 16면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